

서울대 7명, 경찰대 4명, 의·치·한의학 계열 14명 합격

2019년 대입 진학 현황

2019 정시, 불수능에도 수험생 38.8%

‘적정+상향 지원’

“2020 대입 성공의 열쇠, 경쟁력 파악이 우선”

본교에서는 다양한 진로 희망을 반영한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학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의 공학 계열에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였고, 또한 의치한의학대에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학지도가 알찬 결실을 맺고 있다. 최근 대학입시에서는 상위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분야가 다소 차이를 보인다. 특히 자연계의 경우 1등급대의 최상위권 학생들은 공학 계열의 선호도가 높은 데 비해, 학부모들은 졸업 후 진로가 유망한 의치한의학 계열을 선호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2019 입시에서도 일취월장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에서 고른 합격 실적을 보이며 남성의 교육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올해 정시모집에선 전년 대비 상위권 대학의 경쟁

률이 하락했다. 어려웠던 수능으로 상위권 내 변별력이 높아지면서 적정/안정 지원이 이어진 탓으로 보인다. 또한 불수능 여파로 재수를 결심한 수험생이 늘면서 정시모집에 지원한 인원 자체가 감소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심화되는 취업난 속에 안정적인 진로로 매년 높은 인기를 보여주었던 교대의 정시 경쟁률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현재 주요대학의 정시모집 합격자 현황을 분석하면 서울지역 157명, 경기지역 51명, 특수대학 19명, 의·치·한의학 계열 14명, 지방거점국립대 163명, 기타 지역 사립대 83명 등 모두 487명의 학생이 합격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대(4명)와 사관학교(7명)에 11명이 합격하였으며, 상위권 학생들이 취업난 속에 안정적인 학과를 지원하는 흐름 속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는 열정과 도전 의지를 가지고 세계적인 과학

기술선도대학인 KAIST 1명, GIST 1명, DGIST에 2명 그리고 1명의 학생이 일본 나가사키대학 약학과에 합격했다. 어려운 취업 환경에서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하여 높은 경쟁률 속에서도 의·치·한의학계열에 14명이 합격하는 등 여전히 의·치·한의학계열에 대한 인기를 반영했다.

본교는 평소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해가 거듭할수록 입시 경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대학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대학 합격자 수이다.

2019학년도 대학 진학 현황

2019. 2. 27

지역	대학명	합격자 수	지역	대학명	합격자 수
서울소재 대학교	서울대학교	7	경인소재 대학교	인하대학교	8
	연세대학교	1		단국대학교	7
	고려대학교	10		경기대학교	5
	성균관대학교	10		기타경인소재 대학교	31
	서강대학교	5		소계	51
	한양대학교	5	특수대학	경찰대학	4
	중앙대학교	7		사관학교	7
	경희대학교	5		카이스트	1
	한국외국어대학교	11		지스트	1
	서울시립대학교	7		디지스트	2
	건국대학교	8		나가사키대학	1
	동국대학교	6		교육대학교	3
	홍익대학교	14		소계	1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	의치한의학 계열		14
	기타서울소재대학교	51	지방거점국립대		163
	소계	157	지방사립대		83
			소계		260
			총계		487